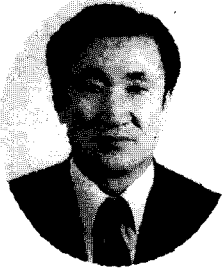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산지식재에 알맞은 조경수종과 재배상의 이모저모



이 상 용 / 황촌 조경수, 조경수
생산유통 심의위원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행정리 250
(0339) 353-0747

잡목 과 잡초로 우거진 소득이 없는 산림에 조경수종으로 바꾸어 심고 잘 재배하여 소득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한다면, 개정된 산림법에 의하여 벌채허가를 어렵지 않게 득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최소한의 경비를 정부에서 뒷바침하여 준다.

이는 산림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는 소득증대를 꾀하는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더욱 값진 임산물을 생산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벌채허가 및 보조를 해주는 뒷바침이 헛되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때가 있다.

벌채를 한다하는 사실은 생태계의 변화 및 자연의 훼손으로 인

간에게 큰 손실이 있으므로 벌채허가를 득하기 전에 실패없는 갱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 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 갱신지의 입지조건

즉 토심의 깊이는 얼마정도이며, 돌과 자갈이 많아 수목출하시 분뜨기에는 지장이 없는가, 토양의 비옥도는 어느정도인가를 조사하여 갱신이 가능한 구역을 정확히 설정한다.

② 입도의 설정

조경수로 수종갱신하여 잘 재배하였다하여도 성목 출하시 분뜨기를 한 후 어떻게 실어낼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입도의 간격은 바둑판처럼 일정하게 설치하지 못한다하여도 경사의 정도에 따라 식재지폭 약 50M 간격을 두고 4~5M 넓이의 입도를 선정한다.

입도의 넓이는 2.5톤의 화물차

가 출입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적어도 경운기 정도라도 다닐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벌채 직후에 입도를 내려면 토사 유출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우선 입도에는 수목을 식재하지 말고 놓아 두었다가 심은 나무가 활착되고 어우러져갈 1~2년후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입도를 설치하는 계획도 생각할 수 있다.

③ 식재지의 정리

벌채한 후 그루터기가 밤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라면 10여년이 경과하여도 썩어 빠지지 않으므로 토사 유출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제거할 것이며 최소한 식재장소에 가까운 그루터기는 제거해야 수목 출하시 분뜨기 작업을 할 수 있다.

④ 식재수종의 결정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갱신의 성공여부 및 소득의 크기정도가 수종선택에 의하여 결정된

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재생산을 위하여 수종을 갱신하려는 산주는 없을 것이고 경제적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수종을 갱신하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정부의 보조를 받지 말고 벌채비용 및 묘목 구입비 전부를 산주자신이 부담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로서는 수익성이 좋은 우량한 조경수를 구입하여 적지 적수로 식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지의 토양은 매년 거름을 넣어가며 다스린 전답의 토양과는 달리 매우 척박하여 잡초 및 나무의 뿌리가 엉키어 식재재배에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조경수종의 선택조건은 세력이 매우 강하여야 하며 잡초 및 잡목에 견디는 힘이 강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위의 조건에 적합하며 조경공사에 대량으로 소요되는 수종을 분석해가며 찾아본다. 침엽수로서는 정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권장해 온 잣나무 대신 입지조건에 견디는 힘이 비슷한 스트로브 잣나무를 들 수 있다.

스트로브 잣나무는 공해에도 매우 강하며 좋지 못한 토양에 견디는 힘도 강할뿐 아니라, 장년기 이후의 수형이 매우 좋아 도시녹화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한 수종이다.

배수는 잘되나 태양광선이 부족하고 비옥하며 잡목 잡초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적합한 수종은 전나무와 독일가문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내음성이 매우 강하

여 잡초와 잡목에 덜하다하여도 잘 견디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낙엽활엽수 중에서 산지 식재 조건에 알맞은 수종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비배관리를 하지 않아도 세력이 강하여 잘 자라며 잡목이나 잡초에 피압되지 않는 속성수이어야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산지에 식재하는 묘목은 1년생이 아닌 2~3년생으로 묘목의 키가 1.5~2m가량 되는 것으로 식재하여야함은 물론이다.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표적인 수종은 우선 산벚나무와 중국단풍을 들 수 있으며, 참나무류, 때죽나무, 마가목, 복자기나무, 살구나무, 자귀나무, 자작나무, 쪽동백나무, 층층나무, 팔배나무 등의 수종을 꼽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임야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산지 식재에 알맞다. 물론 위에 기술한 이외의 수종은 식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식재지의 입지조건이 매우 불리한 상태이므로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실패할 염려가 크다는 의미이다. 한가지 더 강조하는 사항은 산지의 입지조건이 좋지 않고 잡초와 잡목이 엉기고 하므로 묘목대금은 아끼지 말고 규격이 크고 좋은 묘목을 식재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

식재요령은 묘목을 보통깊이로 하고 복을 많이 주어 활착전까지 비,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잘 밟아 주어야함을 잊지 말자.

식재후 제초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잡목에서 발생하는 맹아와 잡초의 발생에 대비하는 것으로 이는 제초제중에 뿌리까지 죽는 “근사미”계통의 침투성 제초제를 계속 살포하여 제거한다. 약제 살포는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식재한 나무 앞에는 묻지 않도록 조심하여 수시로 밀짚이 작업과 제초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비배관리에서 식재하는 해에는 거름넣기를 하지 말고 다음해부터 거름넣기를 실시한다. 산지식재에 알맞은 비료는 인건비 관계로 퇴비를 사용하기는 어렵고, 요즘 시판되고 있는 지효성인 조개탄처럼 압축시킨 고품복합비료를 임업협동조합에서 구입하여 식재한 곳의 50~60cm거리에 주당 $\frac{1}{10} \sim \frac{1}{20} \ell$ 씩 3~4군데 묻어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임야를 벌채한다하는 사실은 산림을 훼손하고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벌채를 했다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갱신을 철저히하여 성공리에 운영되어야함이 산주의 의무이며 책임임을 명심한다.